

OVS-TF

담당 강사 : 유대종

<PART 2 - 인수>

<B1. 공자의 정명론>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은 춘추 말기의 사회적 혼란이 명(名)과 실(實)의 혼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리하여 공자는 명과 실의 관계를 바로잡아 각자의 명목에 합당한 본분을 수행하게 하고자 했으며, 정명론은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명'에 대한 공자의 언급은 "논어"에 나타난 자로와 공자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로가 '위나라 왕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하려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반드시 정명(正名)을 할 것이다.'라 대답하였다. 여기서 정명이란 모든 '명(名)'은, 그 이름에 합당한 '실(實)'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정명론에 대한 해석은 '명'과 '실'을 각각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명'과 '실'을 각각 '이름(명칭)'과 '대상(사물)'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는, '올바른 이름을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지칭하는 것'을 정명의 의미로 규정한다. 이러한 해석은 '정명'의 의미에 대한 언어 중심적 해석으로, 명실론적 해석이라고도 불린다. 명실론적 해석에 의하면, 공자는 당시의 혼란한 사회를 '실'이 '명'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 즉 본래의 '명'에서 벗어나 변화한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명'의 명확한 함의를 규정하고 천명하는 데 있다고 본 인물이다. 따라서 정명의 과정이 전제될 때 '실'을 바로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명의 과정이 어떻게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있게 보여 주지 못한다.

명분론적 해석에서 '명분'이란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람의 행위 등이 지닌 명목 [名] 과 그 명목에 합당한 본분 [分] 을 의미한다. 명분론의 기본 입장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하 귀천의 차등적 상태를 인정한 위에서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전체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

명'에 대한 해석은 '명'을 '명분', 즉 '이름에 함축된 일종의 책임과 의무'로 보고 '실'을 '현실'로 간주하여, '정명'을 '명분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는 해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이유는 공자의 '정명'이 단순한 명명(命名)이 아닌, 규범적 기능을 의도한 것이었으리라는 추측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분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명분의 의미를 '이름에 함축된 책임과 의무'로 볼 때, '명분을 바로잡는 것'은 '주어진 이름에 함축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명'은 단순한 개념의 명료화가 아닌 실천적 지식, 행동을 함축하는 지식의 의미를 띠게 된다. 따라서 명분론적 해석은 명실론적 해석이 지니는 언어 중심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분론적 입장에서 해석된 공자의 정명론은 상하 계층 질서에 따른 차별적 지위를 당연시하고 정치의 주체를 지배층, 특히 군주에 한정하는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합당한 덕의 실천을 촉구함으로써 권력의 자의성을 견제하고 권력자로 하여금 백성을 위해 일정 정도 양보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1. 공자의 정명론은 당시 시대적 인식과 관련이 있다.(O,X)
2. 명실론적 해석은 이름에 합당한 실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견해에 반대할 것이다.(O,X)
3. 명실론적 해석은 '실'이 본래의 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견해이다.(O,X)
4. 명실론적 해석은 정명의 과정을 세밀하게 기술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의 경지에 이르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O,X)
5. 명분론적 해석은 규범적 기능을 좀 더 강조한 해석이다.(O,X)
6. 명분론적 해석은 언어 중심적 해석을 통해 정명의 실천적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O,X)
7. 명분론적 해석은 계층적 관점을 넘어서서 언어 중심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의도적 해석이다.(O,X)

<B2. 오기억>

오기억(誤記憶)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기억하거나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기억 연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기억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면,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오기억 연구는 기억의 오

류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기억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오기억 연구의 여러 권위자들을 거쳐 ㉔개발된 단어 목록인 DRM 과제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떤 단어와 의미적으로 가깝게 연합되어 있는 단어 목록들을 들려준 다음에 기억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험 참가자들에게 ‘의사’라는 단어와 의미적으로 가깝게 연합된 단어들, 이를테면 ‘간호사, 가운, 흰색, 청진기, 병, 환자, 병원, 진찰’ 등을 제시한 후 가능한 한 많은 단어들을 즉시 회상하게 하면, 40% 정도의 실험 참가자들이 실제로 제시되지 않은 ‘의사’라는 유인 단어를 떠올렸고, 또 이어지는 재인 검사에서도 75% 정도가 ‘의사’라는 유인 단어가 목록에 있었던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

이런 오기억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암묵적 활성화 반응 이론, 활성화 점검 이론, 퍼지 흔적 이론 등이 있다. 첫째, 암묵적 활성화 반응 이론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DRM 목록의 단어들이 제시될 때 그 단어와 의미적으로 가깝게 연합되어 있는 유인 단어까지도 암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오기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목록의 단어들이 ㉕반복적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제시된 단어의 활성화 정도도 강해지지만 유인 단어의 활성화 정도도 함께 강화되기 때문에 실제 제시된 단어에 대한 기억만큼이나 제시되지 않은 유인 단어에 대한 오기억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둘째, 활성화 점검 이론은 목록의 단어들이 제시될 때 유인 단어도 함께 활성화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암묵적 활성화 반응 이론과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활성화 점검 이론은 활성화된 유인 단어를 실제로 들었던 단어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의 ㉖혼동으로 유인 단어를 잘못 인출하기 때문에 오기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 또 목록의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 제시된 단어와 유인 단어의 표상이 더욱 활성화되고, 제시된 단어와 제시되지 않은 유인 단어 간의 구분이 점차 명확해짐에 따라 오기억은 줄어들게 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암묵적 활성화 반응 이론과 차이가 있다.

셋째, 퍼지 흔적 이론에서는 제시된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축어적 기억에 의한 것이며, 제시된 단어와 의미적으로 연합된 유인 단어를 잘못 기억하는 것은 요점 기억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축어 기억은 자극의 있는 그대로의 구체적이고 표면적인 형태를 기억하는 것이라면, 요점

기억은 자극의 전체적인 패턴이나 의미적, 관계적 특성 및 여러 자극에서 공통적으로 ㉗추출한 특성을 기억하는 것으로 퍼지 흔적 이론에서는 우리의 기억이 이 두 가지에 기초하여 일어난다고 보았다. 가령 ‘7마리의 소와 3마리의 말이 있다.’라는 문장을 기억할 때 ‘말의 수보다 소가 더 많이 있다’는 의미를 기억하는 것은 요점 기억이며 말과 소가 몇 마리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축어 기억인 셈이다.

퍼지 흔적 이론에 따르면 두 기억은 각각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저장되고 ㉘인출된다. 따라서 어떤 정보의 전체적 이미지나 느낌, 의미는 기억나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정보인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나 어떤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만 그 정보와 관련된 전체적인 이미지와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축어 기억은 요점 기억보다 더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구체적인 정보보다 정보와 관련된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미지가 더 오래 기억된다고 보았다.

유인 단어: 실제 제시되지 않았으나 목록에 제시된 단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실험 참가자들의 오기억을 유발하는 단어.

* 재인 검사: 기억한 단어들을 생각해 내는 것을 ‘회상’이라 하고, 주어진 단어 목록 중에서 고르는 것을 ‘재인’이라 한다. 오기억은 회상과 재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1. 오기억 연구는 기억의 정확도와 양이 주된 관심사이다.(O,X)
2. 실제 제시되지 않은 유인 단어를 떠올리는 이유는 해당 유인 단어와 언급된 단어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O,X)
3. 암묵적 활성화 반응이론과, 활성화 점검 이론은 반복적 제시는 오기억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O,X)
4. 퍼지 흔적 이론은 우리의 기억의 기인점이 유일하다고 보았다.(O,X)
5. 축어 기억은 요점 기억에 비해 느리게 소멸되기 때문에 구체적 정보보다 정보와 관련된 전체적 느낌이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O,X)

<B3. 기억>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여러 번 흥얼거리서 외우는 것은 가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노래를 불렀던 소풍을 떠올리는 것은 특정한 하루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때 내가 가사를 암기했던 노래를 부르거나 소풍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이며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은 과거이고, 기억은 나의 과거를 현재에 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Bergson)은 이 두 기억을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으로 분류하고, 이 기억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재생되는지를 설명한다.

습관 기억이란 형성 과정에서 반복적인 노력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시를 외우거나 운동이나 춤을 익히는 과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시를 외우는 것은 춤을 익히는 것과 다른 순수한 정신적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베르그송은 무수한 반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암송의 과정도 신체의 단련과 동일한 노력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습관 기억이 우리의 신체를 통해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우리의 암기가 완벽하다면 시의 첫 단어만을 듣고도 다음 내용을 줄줄이 암송할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럼 이미지 기억은 무엇일까? 우리가 노래 가사를 외우기 위해 여러 번 노래를 흥얼거리는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내 방에서, 버스 안에서 등 우리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주변 상황은 매번 달라지지만, 가사의 암기를 위해서는 이런 변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길을 건다가 내가 이 길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던 사건이 눈앞을 ©스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나의 행동이나 감정 등 그때의 사건을 야기하

는 모든 상황이 서로 얹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인상으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이미지 기억이라고 한다. 이것은 습관 기억과 달리 외우고자 하는 어떤 노력 없이 저절로 보존됐다가 현재 상황의 자극이나 요청에 따라 이미지 형태로 자유롭게 떠오르는 기억이다.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순수 기억으로, 순수 기억은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 전체를 가리킨다. 우리는 그 순수 기억 중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현재 속에서 재생하고, 과거를 현

재의 순간으로 연장시킨

다. 그는 이 과정을 원뿔 도식을 가지고 설명한다. 거꾸로 된 원뿔 전체는 잠재적인 순수 기억이며, 꼭짓점 S는 우리의 현재인 신체가 놓여 있는 지점으로 이 점을 통해 기억은 현재화되어 외부 대상 세계인 평면 P의 일부를 이룬다. 나의 신체는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를 구성하

는 것들과 작용, 반작용을 하며 순수 기억들을 과거로부터 현재로 불러낸다. 베르그송은 사람들이 S에 집중할수록 외부 자극에 행동이 바로 반응하여 충동적으로 살고, 원뿔의 바닥인 AB 면에 집중할수록 현재의 삶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기억만을 떠올리므로,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순수 기억의 존재와 현실화는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새로운 함축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 순간 오로지 현재만 존재하며, 현재가 지나간 다음에 생기는 과거는 영영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시간에 대한 관점은 현재가 지나가면 과거가 되듯이 새로운 현재는 미래로부터 오기 때문에 미래 역시 이미 주어진 것으로 본다. 이때 시간은 구체적인 삶과는 무관한 누구에게나 동질적으로 주어지는 추상적인 시간으로, 시계를 통해 측정 가능한 시간이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고 있는 주관적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은 기억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으로써 지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과거가 현재보다 먼저 존재하지만, 이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면서 현재가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의 현재는 과거의 지속이며 창조적인 생성이고, 이러한 시간은 운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삶, 부단히 변화하는 열린 미래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게 한다.

1. 기억은 나의 과거를 현재에 연속시키며 현실에서 재생된다.(O,X)
2. 베르그송에 의하면, 습관 기억은 반복적 노력이나 훈련 없이도 이루어진다.(O,X)
3. 베르그송은 기억 내의 시공간과 상황 간의 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한다.(O,X)
4. 베르그송은 원뿔 도식에서 꼭짓점은 잠재적인 순수 기억이며 과거로부터 현재로 불러내는 기능을 하는 점이라고 말한다.(O,X)

5. 베르그송은 S에 집중할 수록 과거의 기억에 함몰된다고 보았다.(O,X)

6. 과거의 지속인 현재의 시간은 부단히 변화하는 열린 미래를 제한한다.(O,X)

<B4. 출구 전략>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 기업이나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세입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을 하거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을 펼친다. 이런 조치들을 ‘입구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대책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크게 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면 팽창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은 너무 늦지 않게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제 위기에 대응한 비상 대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운용 궤도로 돌아가는 것을 ‘출구 전략’이라고 한다. 금융 시장에 사용되는 출구 전략의 대표적 정책은 이자율의 인상을 들 수 있다. 한 국가의 중앙 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금융 및 재정 정책으로 인해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지속될 경우 금융 시장의 과다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의 거품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상승 압력 증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에 따른 재정 적자의 지속적인 누적도 적절한 시점에서 출구 전략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민간 부문의 수요 위축을 보완하여 위기를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빚을 내서 민간 부문의 부족한 소비를 보완하는 대책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확대로 인해 공공 부문의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다음 세대의 재정적 부담으로 귀착되기에 국가의 미래

성장에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

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정책에서도 조세 증가나 정부 지출 감소 등과 같은 적절한 출구 전략이 요구된다.

출구 전략을 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은 불황이나 공황을 발생시킨 원인이다.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 위기는 그 정도가 일반적인 불황보다 훨씬 심각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때 취해야 할 출구 전략은 일반적인 불황과 다르게 그 시기나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 시행 후 출구 전략을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할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에 힘입은 실물 경기의 회복세가 꺾이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자율을 너무 빠르게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억제되어 다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으로 회복되었던 경기가 다시 불황에 빠지는 더블 딥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출구 전략을 지나치게 늦게 취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투기 행위 따위로 인해 일시적으로 호경기와 이상 시세를 보이는 거품 경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진다.

출구 전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구 전략의 운영 체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출구 전략을 취할 때는 정부의 의도와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 시장과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출구 전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호응이 없으면 정책의 실효성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나 출구 전략의 기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1. 경기 침체에 시행되는 입구 전략은 안정적 혹은 위축적인 정부 자금 운용이 그 토대가 된다.(o,x)
2. 경기의 회복기에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은 더 늘리는 방안이 적합하다.(o,x)
3. 금리 인상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o,x)
4. 금리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o,x)
5. 입구 전략의 문제는 민간 부문의 부족한 소비를 국가가 보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세대의 재정적 부담이 포함되어 있다.(o,x)

6. 이자율의 인상은 더블딕의 현상을 초래한다.(o,x)

7. 윗글은 출구 전략 시 지녀야 할 유의점과 필요조건을 언급하고 있다.(o,x)

1. 공자의 정명론

O, X, X, X, O

X, X

2. 오기억

X, X, X, X, X

3. 기억

O, X, X, X, X

X

4. 출구 전략

x, x, o, x, o

x, o